
2016 WHO-FIC 연례회의 참가결과 보고

2016. 11.



통계정책국
통계기준과

2016 WHO-FIC 연례회의 참석결과 보고

1 회의 개요

- 회 의 명: 2016년 WHO-FIC 연례회의
(부제: ICD-11 개정 컨퍼런스: 새로운 시대의 건강정보)
- 출장기간: 2016. 10. 7.(금) ~ 15.(토) (8박 9일), 일본 동경
- 출 장 자: (통 계 청) 최 원 사무관, 이여진, 이나리 주무관
(국가위원) 서 경, 강윤규, 한창호, 홍준현 위원
(연 구 진) 이천균, 최행정, 신동교 연구원
* 한국참석규모: 4개 기관 총 23명(통계청, 복지부, 심평원, 정보원)
* 전체참석규모: 50개국 약 300여명

2 주요 회의 결과 및 수행사항

(1) 국제질병 · 사인분류(ICD) 관련

- (ICD-10 업데이트) 전체 제안 104건 중 78건 업데이트 반영
- 올해 결정된 major 안건은 2019년부터 적용되며, ICD-10 업데이트 작업은 내년까지만 진행 예정

총 제안건수	반영			미반영			내년 이관		
	total	major	minor	total	major	minor	total	major	minor
104	78	26	52	8	4	4	18	10	8

- 우리청 제안 13건 중 반영 10건, 내년이관 2건, 미반영 1건
* 2011년-2016년 우리청 제안 총 40건 중 34건 반영(85.0%)

최종결과	제출 안건	
반영	① 선천성 고인슐린증 코드생성	② 과운동성 방광 코드수정
	③ 간내 혈관문맥 코드지정	④ 신생아 장염전 코드수정
	⑤ 케네디병, 케네디증후군 코드지정	⑥ 질병 간 인과관계 설정
	⑦ 소화불량 코드명시	⑧-⑩ 인쇄 오류 수정(3건)
	내년이관	⑪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코드생성
미반영	⑬ 방아쇠 손가락 표제어 수정(개정중인 ICD-11에 반영)	

- (ICD-11 개정관련) ICD-11 MMS(Mortality and Morbidity Statistics) 공개
- (개정 홍보) 주요 개정내용과 색인검색, 코딩도구(coding tool)와 같은 사용자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과 사전현장시험 등의 홍보에 주력
 - 관심분야에 따른 유연한 통계작성 뿐만 아니라 의료비급여제도, 빅데이터 처리 등 **다목적 활용에 적합한 분류체계임을 강조**
 - * ICD-10과의 연계성이 결여된 ICD-11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대응하여 ICD-11 MMS 발표
 - 전통의학, 의료의 질 및 보장, 일차의료 등 확장된 신규개념 도입
 - 용어의 의미 및 속성에 기반한 SNOMED-CT¹⁾ 체계를 차용하여 개발, ICD-11의 사용자 지원을 위한 연계가능성에 대해 발표
 - (현장 시험) 각 챕터별 분류 완성도의 심한 차이는 있으나, 내년 사전 현장시험을 통해 **2018년 완성을 목표로** 지속적 개발 추진
 - 한국 등 7개 국가에서 시행 중, 2017년 일본 등 9개 국가 시행 예정
 - * 현장시험 결과의 국가별 비교를 위한 온라인 평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중
 - 2014년에 작성된 현장시험 지침서(3단계)와는 다른 총 2단계로 진행
 - (ICTM²⁾ 적용사례 발표) 전통의학분류(TM) 챕터 완성 및 한·중·일 적용사례 발표를 통한 ICD-11의 도입 타당성·필요성 강조
 - (한국 복지부 발표) 통계청에서 한의분류를 통합하여 KCD-7을 제정·운영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**KCD의 개요와 의료비급여 제도에 적용사례(한의약정책과장) 발표**
 - (향후 계획) 시계열 작성이 가능하도록 ICD-10과의 연계 검토 및 각 국가별 현장시험 실시, 이후 컨텐츠 보완 등을 통해 2018년 이후 세계보건총회(WHA) 승인 여부 결정 등

1) SNOMED-CT: Systematized Nomenclature of Pathology-Clinical Terms, 전자의무기록을 위한 포괄적 임상용어시스템
 2) ICTM: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raditional Medicine (on ICD-11), (ICD-11내) 국제전통의학분류

- (시사점) 전년대비 분류구조 및 사용자지원 측면의 완성도는 높아졌으나, 분류의 안정성과 완전성 결여
 - 전산화에 적합한 분류체계로 개발되어 저개발국가 및 개인병원 활용 관련 형평성에 관한 지적과 개인정보보호 방안에 대한 질의 다수
 - 관련 분류체계와의 연계 및 콘텐츠의 미완성과 다국어 전환의 해석에 따른 차이 존재 등 실제 사용과 관련된 문제점 다수

(2) 국제기능·장애·건강분류(ICF) 관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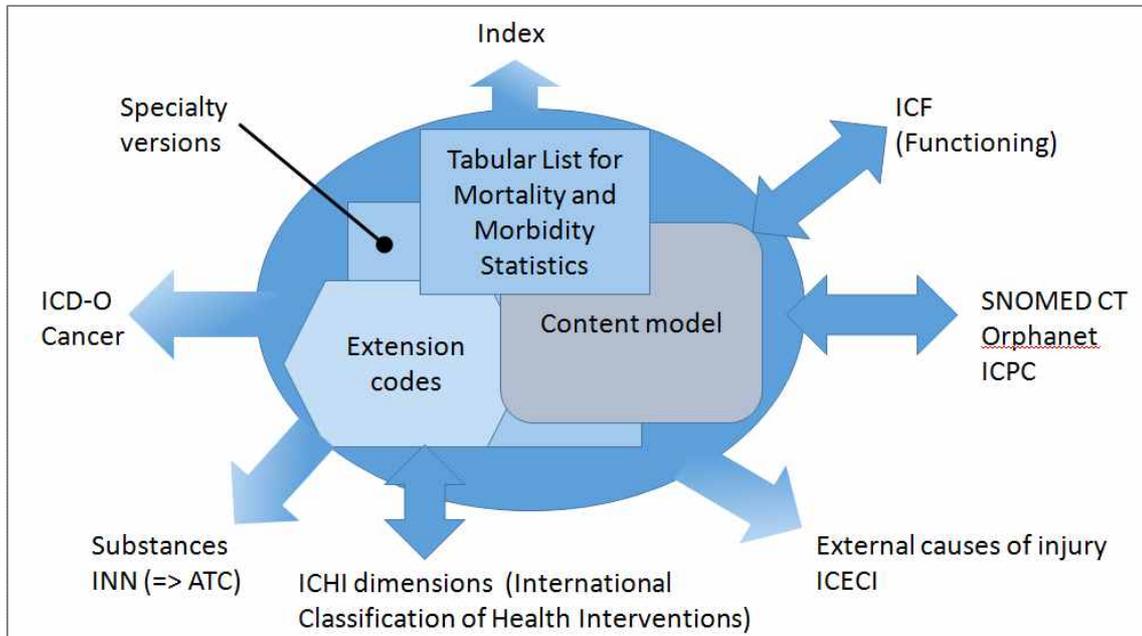
- ICF 업데이트 안전 및 사용자 지원을 위한 교육도구, 분류 간 연계 위한 온톨로지 관련 사업에 대한 논의
- (ICF 업데이트) 전체 제안 20건 중 반영 7건, 미반영 9건, 내년 이관 4건으로, 반영 결정된 제안은 2017년부터 적용
- (사용자 지원) 질병·의료행위분류에 기능수행(functioning)에 대한 개념이 수록됨에 따라 ICF의 개념수립과 교육자료 등에 대한 요구 증가
 - ICF 실무매뉴얼(10월 완성)과 ICF 2016년 버전은 마무리 정비완료 후, WHO 홈페이지 게시 예정
 - * 2016년 개정판에 대한 번역권 부여 및 분류개요와 부록에 대한 업데이트 필요성 언급
 - 개인별 실시간 보건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개발완료한 모바일 ICF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방안 등 논의
 - 분류 간 연계구조 구축을 위해 전산을 활용한 단어별 의미정립(온톨로지) 작업을 추진 중이나, 기능장애자문그룹(FDRG)의 부진한 성과로 다른 위원회 간 과제추진에 차질 발생
- (ICF의 중요성 강조) 노화나 만성질환으로 인한 장기간 장애 경험 인구비율 증가에 따른 보건패러다임의 변화로 전반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ICF 데이터 생산 및 가공에 대한 지속적 요구 증가 예상

(3) 국제 의료행위분류(ICHI) 관련

- ICHI의 운영규정 수립 및 실무멤버 모집 구상과 2016년 버전 공개,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개
- (FDRG 협력 추진) 현재 개발 중인 ICHI에 기능수행(functioning) 개념이 포함됨에 따른 건강기능자문그룹과의 협력 추진 예정
 - * 금년 ICHI 관련 연중회의시 실제로 ICD와 ICF를 구분하여 전문가 회의가 이루어졌음 이에 따라, 다음 연중회의 참가시 ICF 담당자나 전문가의 동반 참여 필요
- (워킹그룹 구성) ICHI 워킹그룹을 구성할 예정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 독려(ICHI 의장 Madden)
- (Alpha.2016 완성) 2018년 개발완료 예정으로 완성도 및 정확도 등 확인협조 요청, 완성 플랫폼은 WHO-FIC 홈페이지에 게시
- (향후 계획) 워킹그룹에서 의료행위분류항목의 적합성과 포괄성 등을 검토 후, 각 국가별 현장시험적용을 통해 2019년 세계보건총회(WHA) 승인 후 시행 예정

③ 기타 사항

- (위원회 체계 개편) ICD-11 개정에 따라 2017년 이후 WHO-FIC 위원회 및 자문그룹의 역할 및 명칭 등의 체계 개편 예정
- (보건분류의 활용 확대) 분류간 연계를 통한 통계생산을 넘어 의료비 지급체계 측면의 활용과 유용성 확대 지향



[ICD-11 Foundation by WHO-FIC]

- (UN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 지원) SDGs의 17개 목표 중 건강 보장과 복지증진관련 항목 파악, 국가간 비교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가단위의 데이터 수집 및 분류조정 등 분류활용방안에 대한 모색
- (포스터 게재 확인) 우리청의 국제의료행위분류 연구 포스터 부스 게재 확인

4 향후 계획

- 각 위원회별 연중회의 참석 및 주제발표를 통한 국제분류 작성에 적극 참여
 - EIC(교육위원회) : 6월초 남아프리카/이탈리아
 - MRG(사망자문그룹) : 3월중 미국 노스캐롤라이나
 - FDRG(기능장애자문그룹) : 6.26-6.30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
 - FDC(분류체계발전위원회, ICHI 포함) : 개최시기 및 장소 미정

- 국제기능·장애·건강분류 개정에 국내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위원회 등에 적극 참여 노력